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  
 현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은 21일 오후 3시30분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우리들의 본래모습'을 주제로 법륜한다.(031)251-1083



일주문



**소외아동 미국문화체험**  
 제원 서울 김용중합사회복지관은 4일 발대식을 갖고 소외아동 50여명과 7박 8일간의 미국문화체험여행을 떠난다.



**경기불교문화원서 법문**  
 지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30분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우리들의 본래모습'을 주제로 법륜한다.(031)251-1083



**강남포교원 작은운동회**  
 성일 강남포교원장은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도곡중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작은 운동회를 개최한다.(02)539-2631



**무모시 천도재 회향법회**  
 효선 부산 지장불교 공덕원 주지는 5월 23일 공덕원 법당에서 4월 4일 입재한 제2회 무모시 천도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대학 재학생 수계법회**  
 지성 대구불교대학장은 5월 25일 보현사 2층 법당에서 불교대학 재학생 121명에 대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만일영불결사회 3주년**  
 보광 서울 정토사 회주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정토사 극락전에서 정토사만일영불결사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파라미타 새 사무총장**  
 진각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은 최근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법규경 강의 1년 회향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5월 30일 불교방송 3층 대강당에서 '불교방송 법규경 경전 강의 1년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조동종 상반기 임시총회**  
 진일 조동종 중앙종회의장은 10일 오후 2시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4층에서 상반기 중앙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남도지부 상임고문**  
 선진규 사단법인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5월 28일자로 새천년민주당 경남도지부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그때 그사람 지금은 **서예가 김응현씨**

**교통사고 후유증 딛고 왼손으로 선서일여 필봉**

우리나라 서예계를 대표하는 거장 여초 김응현(如初 金應顯, 77) 씨. '독창적 세계를 확보한 현대 한국서단의 서성(書聖)'이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는 여초 선생은 서법에만 일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서법학 이론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사다. 서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해 이를 모아 <서여기인(書異其人)>이라는 저술집을 냈고 후학들을 위해 서예의 모든 것을 담은 <동방서예강좌>를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초 선생은 99년 불의의 교통사고와 중풍으로 마비증세를 보여 오랜 병원생활을 보내야 했다.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작품을 쓸 정도로 불굴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여초 선생은 예도삼매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동방대학원대학교 태고종에 남기고 현재 인제 한계리 영시암(永久庵)이란 암자에 머물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경은 기도·참회·선근공덕 불사”**

사경집 펴낸 서예가 이청자 보살

“사경은 곧 기도요, 참회요, 선근공덕을 짓는 불사이며,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인연있는 경전을 사경해서 거두는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주부이자 서예가인 이청자(60, 법명 소림자·사진) 보살이 사경수행 30년만에 <금강경 무량공덕 사경기도집>(일월정사)을 펴냈다. 행서로 쓴 이 사경집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만봉 스님이 책표지에 그려준 달마도와 금강경 한글 번역본이 함께 들어있다.

한번 금강경 사경을 시작하면 3일동안 잠을 자지 않고 불무하는 이 보살은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금강경을 7독 하는 수행을 해왔다. 26세에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사동생이 스님인 불교집안에서 시집은 이 보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개종을 결심했다. 이때부터 법규경을 시작으로 법화경, 지장경, 금강경을 차례로 공부했다. 그러다가 20년전, 가평 도솔

천사 주지 신홍 스님을 뵈고 4년간 채식만 하면서 금강경을 다시 공부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금강경 사경기도가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보살은 가평 도솔천사 정기법회에 빠진 적이 없으며 1년에 4번씩 21일씩 하는 지장, 관음기도 역시 쓴 적이 없다. 사경은 기도라는 생각에 반드시 법당에서 사경했다.

남앞에 드러나지 않는 은은한 달빛처럼 신행해 온 이 보살은 서예가로서의 입지도 녹록치 않아 이미 <금강경> 서예교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평생 경전을 쓰다 죽겠다”는 이 보살은 사경은 한 자 한 자 서도삼매에 빠져 지혜를 구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사경함으로써 삼독(탐, 진, 치)을 떨치고 다같이 성불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서원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군포교 성금 1억**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5월 28일 조계종 포교원에 군포교 특별성금 1억원을 쾌척했다. 전달식에서 혜원스님은 “군불자장병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혜원스님은 성역화불사 기금으로 5천만원 등 조계종 총무부장 성관스님에게 전달했다.

**한국불교예술대 인턴전수관 개관**

무형문화재 법패·나비춤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종향예술대학(학장 일최)은 5월 23일 인턴사 부평구 십정동 회춘원빌딩 2층에 인턴 법패·나비춤 보존회 전수관을 개관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일최 스님이 직접 강의한다. (032)529-6708

**한국불교교화원 보살계 수계법회**

한국불교교화원은 5월 27일 서울 흑석동 도림사에서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개최했다. 전계아사리 운허(한국불교교화원 중앙회관)·갈마아사리 중도(도림사)·교수아사리 구관(서울 정법원) 스님 등 35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법회는 참회, 연비 등으로 이뤄졌다.

**北 단청불사 1차분 선적식**

북한사찰 단청불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법타·학담)는 5월 27일 인천항 영진창고에서 단청안료와 재료 및 도구 1차분 선적식을 개최했다.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전달되는 물품은 단청안료 및 재료 15톤 분량 등 단청도구 일체(총 6천5백만엔 상당)다.

**대불어 사무실 이전 개원법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는 5월 26일 불교회관 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정여스님은 “어린이 포교라는 커다란 틀에서 부처님 사무국과 협력하면서 함께 연구, 노력하는 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TV 대구지사 법당 개원**

불교TV 대구지사는 대구시 동구 동양고속 5층 법당 무상사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박정석 불교TV 대구지사는 “앞으로 큰스님 다큐멘터리나 불교관련 영상 만화영화 제작을 통해 지역 멀티미디어 포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4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교도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상 : ①자원봉사 희망자 ②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원 희망자 ④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 연수기간 : 2003년 6월 25일~ 8월 1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까지)(장의따라 요일 변경)
- 장 소 : 연꽃 교육장 (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 신청기간 : 2003년 5월 26일~6월 25일까지
- 문의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월(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태아기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서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골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배변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체형관리**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골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배변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배당되는 증상(0)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딱딱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성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개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연락주세요.**

분할 납부 가능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